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 전략: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정화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 배경 및 연구목적
2.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식
3. 선행연구

II. 배경 및 특징

1.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흐름
 - (1) 원조 시작 및 국교 수립의 시기 (1949-1978)
 - (2) 원조 침체기 (1978-1995)
 - (3) 원조 활성화기 (1995년-현재)

III.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의 특징 및 성공요소

1. 정치 외교적 측면
 - (1) 방문외교
 - (2)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
2. 경제적 측면
 - (1)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
 - (2) 활발한 기업 진출

IV. 수단 사례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V. 결론

VI. 참고문헌.

I. 서론

1. 배경 및 연구목적

에너지는 특히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매장량이 필요한 자원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가 에너지자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는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갈등 혹은 종속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문제는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안보에 관한 인식에 기인해 전 세계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상승하는 원유가격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으며 이에 아프리카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¹⁾

위와 같이 에너지를 둘러싼 전 세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은 충분한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중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석유 소비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전개되어 2002년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를 소비하는 일본을 따라잡았으며 2010년에 중국에는 7천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했으나 2020년에는 2억대의 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중국의 석유 소비 규모가 커지고 그 증가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해 증가치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석유 수입 의존도는 1997년 23%였지만 2009년에는 53%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61%, 2030년에는 74%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²⁾

이렇게 변화한 에너지 구조는 중국이 에너지를 더욱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이 에너지자원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중국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라는 사실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자원에 투자해 달러보다는 여러 가지 자원을 현물로써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 필요성과 맞물려 중국의 자원 확보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³⁾

중국은 위와 같은 국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특히 아프리카와 단순히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 등 국가 전반적으로 전 방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아프리카 외교는 ‘밀월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고위층들의 아프리카방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하라 이남의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은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이제 중국의 아프리카진출은 더 이상 경제적 진출이 아닌 국가적인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많은 협력분야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주석은 2006년 제 3차 FOCAC(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 이 아프리카 35개국이 참석한

1) 해외자원개발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1-2

2) 이충배, 노진호,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2011, 「통상정보연구」, pp120

3) 이창형,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여름호, pp.206

포럼은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OCAC는 2000년에 창설되었으며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도에 베이징에서 제 5회 FOCAC가 개최되었다. 나아가 FOCAC 외에도 2013년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취임이후 첫 공식해외일정으로 방문해 다시 한 번 중국에 있어서 대 아프리카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2.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식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크게 교역, ODI(대외직접투자: Overseas Direct Investment), ODA(공적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물자나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이 그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양허적 성격을 띠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율(Grant element)이 25%이상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혜국 목록에 있는 국가 등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ODA는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지며 그 중 전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인 경우다. 후자는 World Bank, UNDP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부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여된 ODA중 공여국이 수원국에 제공한 물자 혹은 자금을 상환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의 법적인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무상원조’라고 하며 공여된 물자 혹은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개발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경우 ‘유상원조(차관)’라고 한다. 한편 ODA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정(tied)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원조’ 혹은 ‘타이드 원조’라고 하며 이러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비구속성 원조’ 혹은 ‘언타이드 원조’라고 한다. 이는 조건이 모든 물자 혹은 자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분구속성(partially tied) 원조’를 개별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

현재 중국의 ODA 현황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중국이 OECD의 DAC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는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 데이터를 참고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EAI, BP 등 서방국가에서 조사한 수치를 이용 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중국의 에너지자원 투자와 아프리카 ODA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안세현(2012)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 연계 마스터 전략: 성공요인과 한계점 분석”⁵⁾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국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정책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성공요인과 한계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ODA를 통해 얻

4) 유용조,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2011,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9권 1호, pp.35-37

5) 안세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 연계 마스터 전략: 성공요인과 한계점 분석”, 2012, 「동서연구」, 제 24권 1호, pp109-140

는 여러 가지 이익과 그 방법을 무역, 지출금 등의 통계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외교 연계의 논점으로 연구했다. 또한 에너지 외교 연계 전략의 성공요인과 사례를 구조적이점과 그 전략에 있어서의 강점, 정서적 동질감, 장기적인 전략 등의 요소들을 중국과 아프리카의 외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봄으로써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 및 투자, 인권의 측면에서 연구했다. 이창형(2012)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⁶⁾”을 통해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새로운 중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상황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과의 정치적 및 에너지 측면에서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이에 따른 중국의 특징과 전략을 살펴본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양한 국가의 측면에서 연구해 한국의 에너지 및 대 아프리카 대응방안을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보다는 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측면에서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를 바라본 경향이 강하다. 또한 몇몇 연구는 현황과 역사 분석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중국의 ODA는 자원에너지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자원에너지는 국가 안보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중국의 ODA 목적을 보자면 경제적 원리로서의 공적원조성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ODA 통계자료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고 공적원조는 정치적·외교적·안보적 성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분석의 틀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에 더욱 무게를 두어 연구했다고 한다면,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를 기존연구보다는 더욱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II. 배경 및 특징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특히 개혁개방 이후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해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큰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더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이는 중국의 에너지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지도부는 에너지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⁷⁾

1.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중국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에너지 자급률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풍부한 석탄매장량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19억 5천 6백만 톤을 생산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인 39억 5천 5백만 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가로 자리매김 했다. 이와 같은 높은 자체 수급률을 바탕으로 중국은 총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는 석탄이며 2011년 기준으로 18억 3천 9천만 톤을 소비해 전체 에너지 소비

6) 이창형,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 「국방정책연구」, 제 28권 2호, pp.205-240

7)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미중관계”, 「EAI중국연구패널보고서」 pp.1

의 약 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석유가 4억 6천 백만 톤으로 그 뒤를 이으며 천연가스는 1050억 입방미터를 소비해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앞에서 밝힌 대로 그 중 자급의 비중 또한 높은 양상을 띤다.

2007년 중국정부가 발간한 에너지백서(<中國의能源狀況與政策>)에 의하면 중국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경우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형 유전을 보유하고 있어 2006년 현재 1억 8,500만 톤을 생산해 세계 5위 원유생산국이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매우 높아 1990년대까지 중국은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2차 오일쇼크도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국가로 떠올랐으며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해마다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⁸⁾

그 중 특히 석유 에너지 소비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원유 수출국이었지만 석유 수요의 증가 및 생산의 정체 때문에 1993년부터는 석유 순 수입국, 1996년에는 원유 순 수입국이 되었다. 또한 원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유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해 2010년도에는 1996년보다 약 15배가 증가한 234.6%에 달했고 원유의 수입 의존도는 54.7%를 기록했다.⁹⁾ 실제로 중국은 2001년도에 2억 2천 8백만 톤을 소비했지만 10년 후인 2011년도에는 4억 6천백 만 톤을 소비해 10년간 두 배 이상 소비량이 증가했다. 또한 세계 총 석유 소비량이 2011년도에 40억 5천 9백만 톤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세계 석유 소비량의 10% 이상을 소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예측해보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산업에너지 수요 증가율 둔화가 2020년 후반부터 눈에 띄게 감소할 예정이다. ¹⁰⁾특히 중공업 분야에서의 주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의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진다. 석탄의 성장률은 2010-2020년 48%를 차지했지만 2020-2030년에는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석유의 경우 2020-2030년에 2010년-2020년보다는 성장률이 줄어들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¹¹⁾

이와 같이 중국의 에너지에서 석유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대 아프리카 ODA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정부가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고 상환은 원유로 받는 형식을 취한다.

8)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미중관계”, 「EAI중국연구패널보고서」 pp.2

9) 김건석, “중국의 에너지 수요급증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제고”, 2012, 「지역발전연구」, 제 11권 2호, pp.5

10) BP, 2012, "2012-2030 Eergy Outlook Booklet" pp50

11) BP, 2012, "2012-2030 Eergy Outlook Booklet" pp51

2.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흐름

(1) 원조 시작 및 국교 수립의 시기 (1949-1978)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은 한편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을 지원(1953년) 하는 형식으로 원조를 시작하였다.¹²⁾ 아프리카와의 교류는 1953년 이집트와의 수교가 그 시작이었으며 중국은 제3국가들과 연계해 공산주의 혁명을 널리 펼치려 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된 것은 1958년 이후이며 국교 수립 후에 원조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주로 공업 프로젝트, 농장 건설, 우물설치 등을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의료진 파견과 스포츠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건설은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크게 증진되는 계기가 되었다.¹³⁾ 탄자니아-잠비아 철도건설의 경우 1970년도에 협정을 조인해 착공한 후 5년 뒤인 1975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9.88억 위안의 무이자 원조와 약 100만 톤의 설비 및 5만 명의 기술자를 파견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얼마나 전략적 지역으로 인식했는지 보여준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중국은 1971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알바니아, 알제리 등의 국가들이 중국의 지위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실제로 중국의 76석 찬성표 중 26석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나온 것이다.¹⁴⁾

(2) 원조 침체기 (1978-1995)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중국을 과거 이념중심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실리주의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에 힘을 쏟기 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의 산업모델을 습득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데올로기 중심의 외교가 아닌 실용외교로의 전환은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1982년 자오즈양(趙紫陽)총리는 아프리카를 방문해 ‘중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기술협력 4원칙’¹⁵⁾을 발표해 중국의 달라진 대 아프리카 인식에 따른 정책변화를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은 국내에서의 산업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본에서 엔 차관 원조를 받고 원조 수혜국이 되었다. 이렇듯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의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은 원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난으로 인해 제3국에도 원조를 계속 제공하였다. 대신 원조 규모를 줄이되 원조 국가 수는 유지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¹⁶⁾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 및 서방세계의 비난과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의 위기 속에서 중국은 다시 한 번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외교부 장관이

12) 강준영, 서상형, 공유식,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0, 「중국연구」, 제4권, pp.265

13) 권혁기, “일본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전략 비교: 정부개발원조(ODA) 및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2008, 「아프리카학회지」 29집, pp.12

14)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발견”, 2009, 「국제정치학회」, 제 49집 1호, pp182

15) 중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기술협력 4원칙은 평등호혜, 상호이익, 상호협력, 공동발전을 얘기한다. 출처: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발견”, 2009, 「국제정치학회」, 제 49집 1호, pp183에서 인용

16) 강준영, 서상형, 공유식,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0, 「중국연구」, 제4권, pp.266

1991년 이후 매년 첫 방문으로 아프리카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풀이되기도 한다.¹⁷⁾

(3) 원조 활성화 (1995년-현재)

1995년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태도가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정치·외교적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로 아프리카를 바라보았다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호혜평등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가 재정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특히 1996년 장쩌민(江澤民)이 아프리카를 순방할 때 중국과 아프리카간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할 것을 선언하면서 중·아프리카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수단,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 대한 원조가 급증한 것은 중국이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을 계기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 졌는데 2000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후 3년 마다 열리는 이 포럼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폭넓은 협력과 관계개선 등을 논의한다. 최근 2012년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5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아프리카 평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중국과 아프리카간의 신형 전략 파트너십을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III.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특징 및 성공요소

1. 정치·외교적 측면

(1) 방문외교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원조가 힘든

국가 재정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끊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방문외교는 중국의 성공적인 대 아프리카 ODA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 저우언라이 총리의 아프리카 방문 이후 1991년부터 매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를 첫 해외 순방지로 방문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 뿐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 또한 취임 후 여러 차례 아프리카로 순방을 갔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아프리카였을 정도로 중국 지도부에게 아프리카는 중요한 전략적 요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방문외교, 즉 정상외교를 이용해 정치·외교적으로 긴밀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는 ‘실리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의명분 보다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¹⁹⁾

또한 중국의 지도부는 방문외교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국의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17)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발견", 2009, 「국제정치학회」, 제 49집 1호, pp184

18) 전가람,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외교 전략", 2008 「동서연구」, 제 20권, 2호, pp.119

19) 김주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의 자원각축", 2007, 「아프리카 학회지」 제25집, pp.14

이러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ODA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과거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열강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냉전시대가 도래해 미국과 소련의 두 패권국가 중 한쪽의 노선을 따라야 할 입장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동맹국, 즉 제 3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중국은 냉전시대가 끝난 후에도 아프리카와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열강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을 이끌어냈다.

(2)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가 서방국가와 다르게 특징지어지는 것 중 하나는 정치적인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그 국가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주로 현금융자 지원 혹은 개발 프로젝트 제안 형식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데 이때 ODA 수원국에 대한 정부예산 혹은 추가 의무사항, 정부 예산 투명성 보장, 국내 재정 운영 계획 등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조건을 걸지 않고 간섭을 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전략은 서방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방법인데 서방국가들은 아프리카에 공여할 때 World Bank나 IMF와 함께 원조를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경제구조, 교육, 보건 등에 대한 개혁 혹은 정치적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아프리카 정부에 현금을 지불해 교량 혹은 건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지 에너지 회사 인수 혹은 유전개발권을 획득하는 방식 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 혹은 내정간섭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중국은 개입하지 않고 모른 척 함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아프리카의 모든 부분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방국가들처럼 정치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거나 국가 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 등의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ODA 공여국에 조건을 달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은 아프리카의 내전 후 중국이 아프리카 전후 복구의 ODA를 제공하는 대신 중국이 제공한 ODA금액으로 수주한 사업의 70%는 중국 기업들이 수행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즉 중국정부는 아프리카에 ODA를 제공하는 대신 그 금액으로 자국의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게끔 수원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20)

2. 경제적 측면

(1)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

중국의 ODA는 차관, 인프라, 자원의 세 가지가 연계된 형식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의 공여는 수원국에 대규모 차관을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및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위 'Package Deal방식' 혹은 '앙골라 방식'²¹⁾이라고 불린다. 이 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의 50%이상을 중국기업이 조달한다는 조건이 반

20) 안세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 마스터 연계전략: 성공과 한계점 분석”, 2012, 「동서연구」, 제24권 1호, pp.121

21) 앙골라방식은 2004년 중국이 석유를 담보로 앙골라의 전후복구사업에 20억 달러의 차관(17년, 이자율 15%)을 제공한 것에서 유래함 자료: KIEP

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건설회사가 중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설물을 짓기로 하면 아프리카 수원국 정부는 중국 인프라 건설 업체에 프로젝트를 부여해 주게 된다. 이후 아프리카 수원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의 대가로 중국 자원회사에 원유 및 광물 등의 채굴권을 주고 중국 자원회사는 채굴한 이윤을 바탕으로 수출입은행에 대출 자금을 상환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본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자국에 풍부한 자원을 정치적 관여 없이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자금력과 기술을 이용해 자국의 힘으로는 건설하기 힘든 대형 건축물이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잉여 노동력을 아프리카로 보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자국의 기업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프로젝트를 줌으로써 경제적 인 도움을 주며, 국가적 차원으로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와 중국의 이해 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실리적 관계를 얻는 협력모델로 인식함으로써 ‘윈-윈’의 거래를 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수단, 콩고, 앙골라 등의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관이 힘들고 인프라가 열악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가 자원부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앙골라 방식은 중국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가봉의 경우 철광석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철광석을 받았다. 가나의 경우에는 2007년 5억 6천 만 달러의 차관을 수력발전엔 필요한 댐 건설로 제공했으며 상환 중 일부는 코코아로 돌려받았다. 2008년에는 콩고에 철도, 도로, 학교건설, 병원건설 등 국가개건사업에 90억 달러의 차관을 주고 1,000톤의 구리와 63만 톤의 코발트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기니에서는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2009년 체결했다. 22)

(2) 활발한 기업진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많은 중국의 기업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활발하게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안정된 석유 수급을 위해 해외진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CNPC, Sinopec, CNOOC 등의 중국 석유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국영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특히 해외 석유자원에 대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CNPC가 1993년 태국에서 유전개발권을 획득한 것을 최초로 남미, 중동, 러시아 등에서 점차 채굴권 확보 지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²³⁾ 기존에는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았으나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을 다각화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서방국가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자원·광물에너지가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5년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 도입액이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의 총 원유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액수였다.

하루 250만 배럴의 석유를 산출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 국유석유회사 3사가 진출해 개발권 및 채광권을

22) KIEP, 201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pp.286-289

23) 이충배, 노진호,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2011, 「통상정보연구」, 제 13권 3호, pp.130

획득했다. 한편 CNPC는 중국 고위급 외교를 통해 4광구에서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4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발전소 건설 등의 40억 달러 금액의 원조를 신청해 상환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2006년 후진타오의 케냐 방문과 함께 CNOOC가 케냐 내의 소말리아와 남부 수단 인근에 위치한 지역 석유시추공사권을 획득했으며 2007년 4월에는 Jinchuan그룹이 케냐에 위치한 티타늄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티오민사에 20%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2010년부터 케냐내의 나이로비-티카 국도와 케냐와 근접 국가들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에 대한 개·보수에 투자했다.²⁴⁾

또한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의 측면에서는 CNPC의 수단 진출이 특징적인데 중국은 수단에 2009년까지 약 15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중 50 달러는 CNPC가 투자한 금액이다. 2006년 후반 중국은 5억 달러를 수단에 투자했는데 이 때 CNPC는 에너지 경제부와 함께 수단 제 1의 석유 정유공장에 투자를 했고 이에 다르푸르 남부 지역에 위치한 유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에 2009년 수단의 대 중국 원유 수출은 13% 증가한 860만 톤을 기록해 중국 내 원유수입 6위 국가가 되었다. CNPC는 중국 원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석유 회사이며 1990년대부터 해외에 눈을 돌려 1990년대 중반에 해외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수단에 진출해 각종 개발권을 취득하고 파이프라인 등 제반시설을 건설했다. 이와 같은 수단의 자원개발과 함께 CNPC는 수단에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수단에 170개의 우물을 건설하고 물 정수 공장을 지었으며 파이프라인 설치를 통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마련했다. 또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학생들과 수단 학생들의 학술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고아와 노인을 위한 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²⁵⁾ 이와 같이 CNPC는 한 편으로는 수단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아프리카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IV. 수단 사례

1. 정치적 측면

수단의 이슬람계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Omar Hasan Ahmad al-Bashir)의 남부 억압정책으로 인해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들이 정부의 시설을 공격하면서 다르푸르 사태가 시작되었다. 수단 정부는 이 저항운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간, 인신매매 등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미국을 위시하는 국제사회는 수단에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① 무기관련수출 및 판매금지 ② 이중용도가 있는 품목의 수출관리, 즉 테러지원국의군사력이나 테러단체의능력을강화시킬수있는제품등의수출은30일전에 의회에 통보를 의무화 ③ 경제원조 금지 ④ 금융제재 등이 있다.

이러한 서방국가의 제재 속에서 수단은 세계적으로 고립되었고 1990년에는 IMF가 수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수단에 진출했던 외국 에너지 기업들마저 수단에서 철수해 수단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해외에서의 자원 확보에 눈을 돌린 중국은 자원부국인 수단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된다. 1996년 중국의 CNPC는

24) KOTRA, 2011, “아프리카 시장, 인도가 중국과 용호쌍박전 - 승자는 과연?”

25) 국토연구원, 2010,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 : 협동연구보고서.2”, pp24-28

"Hegling and Unity Oil Field" 개발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1,6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고 정유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2004년 7 월에는 수단을 제재한다는 안건을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수단과 중국과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중국과 수단의 군사협력 또 한 긴밀해져 중국은 수단에 헬리콥터, 전투기 등의 무기도 판매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무 기를 판매하는 대금으로 수단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쟁자 없이 독점적으로 자국에게 필요한 원유를 공급받는 동시에 무기 또한 판매할 수 있었다.²⁶⁾

2. 경제적 측면

위와 같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단 남부지역의 유전개발 및 정유 사업, 송유관 건설 등의 전반적인 석유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현재 수단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이 중 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수단에 진출한 에너지 주요 기업들 중 중국의 기업이 절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단은 산유국이지만 정유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미 정유가 된 석유를 수입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CNPC와 수단의 광업 에너지부가 함께 하르툼 정유공장을 건설해 수단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완공된 이 공장은 모두 중국의 기술로 지어졌 으며 기술자들도 중국이 제공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수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기계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CNPC는 수단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 업으로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CNPC가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데 에는 앞에서 밝혔던 서구 기업들의 수단 철수가 큰 계기를 만들었는데, 톨스로이드, Schlumberger 등의 기업들이 수단을 떠남에 따라 중국은 CNPC를 중심으로 독점 체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수단에 비중을 크게 두며 진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원조달 책임을 부담시키기 때문인데 만약 건설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수단의 입찰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 는 중국의 국영기업은 여타 자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경쟁 국가들로부터 우위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중국은 수단의 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 발을 통한 안정적인 원유 확보는 중국으로 하여금 댐, 정유소, 도로, 공항 등의 수단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건설로 수단의 인프라 대부분은 중국이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프라 뿐 아니라 석유 유통분야까지 진출해 수단에 주유소도 건설해 수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⁷⁾

2011년 남 수단이 북 수단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중국의 진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북 수단에는 정유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석유자원은 남 수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향후 중국의 남 수단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²⁸⁾

26) 안승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수단의 석유자원과 관련하여", 2012, 「아프리카 연구」, 제 32호, pp.11-125

27) KOTRA, 2007, "미지의 아프리카, 기회의 대륙으로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 및 시사점"

28) 안세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 연계 마스터 전략: 성공요인과 한계점 분석", 2012, 「동서연구」, 24권 1호, pp.125-127

V. 결론

위와 같이 중국은 여러 각도에서의 전략을 바탕으로 활발한 아프리카 진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의 흐름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외교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경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4세기 반 만에 이루어진 아프리카 순방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6년 11월 서울에서 제 1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개최되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우간다 및 모잠비크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모잠비크 아르만도 게부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역의 새마을 운동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도 아프리카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3년 5월 북아프리카 지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²⁹⁾

이와같이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후발주자로서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유 도입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ODA진출 비중은 7~8%에 불과하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원유도입은 4~5%에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 원유 의존도가 30%인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³⁰⁾

ODA는 노무현 정부의 한국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아프리카와 관련한 원조정책은 미비했다. 한국의 개발원조는 1987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에는 GNI대비 0.04%인 202.1백만 달러, 2008년에는 GNI대비 0.09%인 802.3백만 달러를 제공해 8년 만에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ODCE회원국의 GNI대비 ODA가 0.31%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ODA는 아직 규모가 작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ODA를 기여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까지 0.25%의 ODA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저조한 대 아프리카 ODA진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아프리카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출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의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성공적인 ODA를 이룰 수 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자원 에너지에만 치중한 아프리카 ODA는 길게 지속될 수 없으며 아프리카에 부정적인 인식을

29) 『세계일보』 (2016.6.9) “하나-외환銀, 중동·北아프리카 진출 기업 지원” (2013.5.28)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8004815&subctg1=&subctg2=&OutUrl=naver>)

30) 이창형,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 「국방정책연구」, 제 28권, 2호, pp.234

31) 이한규, “한-아프리카 포럼의 의미와 이명박 정부의 대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소고”, 2011, 「아프리카 학회지」, 제 33집, pp.62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 아프리카 ODA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대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와 한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통해 협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의 결과로 아프리카의 자원과 에너지 확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³²⁾ 아프리카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한-아프리카 포럼 등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정례적 행사 개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인프라-자원 연계를 응용해 ODA와 자원을 연계한 민관협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협동사업을 통해 민간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이 거대한 자본을 통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금을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개별 프로젝트를 통한 차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공공기금 출연 등의 지원 대상 다양화를 할 수도 있다.³³⁾ 기존 원조 체계는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써 정부가 단독으로 원조를 제공했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욱 큰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계약을 맡게 된다면 에너지 조달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에너지 관련 진출은 주로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사 및 민간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투자만을 통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관이 협동해 ODA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한다. 한국 또한 아프리카와 같이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후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전수해 줌으로써 한국은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어려운 역사를 딛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잠비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에 대해 제시했듯이 아프리카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 단 아프리카에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통해 진출할 때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하는 것 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³⁴⁾

32) KIEP, 201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pp.344-345

33) KIEP,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계, pp.94-95

34) 이창형,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 「국방정책연구」, 제 28권, 2호, pp.237

<참고문헌>

1. 강준영, 서상형, 공유식,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0, 「중국연구」, 제4권
2. 권혁기, “일본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전략 비교: 정부개발원조(ODA) 및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2008, 「아프리카학회지」 29집
3. 김건석, “중국의 에너지 수요급증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제고”, 2012, 「지역발전연구」, 제 11권 2호
4.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발견”, 2009, 「국제정치학회」, 제 49집 1호
5. 김주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의 자원각축”, 2007, 「아프리카 학회지」 제25집
6. 안세현,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ODA정책과 에너지 외교 연계 마스터 전략: 성공요인과 한계점 분석”, 2012, 「동서연구」, 24권 1호
7. 안승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수단의 석유자원과 관련하여”, 2012, 「아프리카 연구」, 제 32호,
8. 유용조,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2011,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9권 1호.
9. 이창형,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 「국방정책연구」, 제 28권, 2호
10. 이충배, 노진호,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2011, 「통상정보연구」, 제 13권 3호
11. 이한규, “한·아프리카 포럼의 의미와 이명박 정부의 대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소고”, 2011, 「아프리카 학회지」, 제 33집
12. 전가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외교 전략”, 2008 「동서연구」, 제 20권, 2호
13. KOTRA, 2007, “미지의 아프리카, 기회의 대륙으로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 및 시사점”
14. KOTRA, 2011, “아프리카 시장, 인도가 중국과 용호쌍박전 - 승자는 과연?”
15. BP, 2012, “2012-2030 Eergy Outlook Booklet”
16. KIEP,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계
17. KIEP, 201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18. 국토연구원, 2010,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 : 협동연구보고서.2”
19.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미중관계”, 「EAI중국연구패널보고서」
20. 해외자원개발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1-2
21. 『세계일보』 (2016.6.9) “하나·외환銀, 중동·北아프리카 진출 기업 지원” (2013.10.28)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8004815&subctg1=&subctg2=&OutUrl=naver>)

